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체험*

- 대학생활의 적응 및 위기 극복 -

김건희**, 황은희***

학력주의에 따른 대학 간 이동 증가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학과 편입학 정원 확대로 편입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과정의 중간에 놓이게 되는 편입생의 대학생활상 위기 또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에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편입생의 위기 극복, 대학생활 적응 및 올바른 학업 성취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B시의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편입생 10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학과 편입생들은 첫 학기에 ‘방향을 전환함’, ‘새로운 체제로의 적응’, ‘편입생이라는 꼬리표를 담’, ‘혼돈 그 자체: 당황과 걱정’, ‘학교에 매임’, ‘내가 감당해야 함’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의미한 현상이나 개념을 중심으로 교수진의 효과적인 지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편입생이 편입 첫 학기에 겪는 위기에 대처함으로써, 중도 탈락하지 않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여 단기간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력 양성으로 간호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해야 하겠다.

주제어: 간호학과, 편입생의 위기, 대학생활 적응

1. 서론

학벌 및 학력주의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 대학사회의 위계적 서열구조에 의한 수도권 대학 및 4년제 대학에 대한 선호현상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대학 간 학생들의 편입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의 대학 편입생 수는 35,000명을 훨씬 넘어 섰고(교육과학기술부, 2011), 간호학과 또한 예외는 아니다.

편입은 일 학년이 아닌 어떤 학년에 끼어들어 가는 것(국립국어원, 2012)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이 학생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임(서현·송선화, 2009)을 고려할 때, 편입생이 소기의 학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 이 논문은 2011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와 낮은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사, 수업, 인간관계, 졸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등(오영재, 2006) 개인적 차원의 위기를 겪게 된다. 물론,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이(transition)해나가야 하는 대학 신입생 또한 대학생활에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들은 함께 입학한 교우와 같이 순차적으로 고학년으로 진학하며 대학생활에 적응하면서, 소속 교육기관의 고유한 문화를 습득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반면 편입생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신입생 시절을 이미 거쳤고, 해당 기관에서의 대학생활에 적응한 상태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중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더욱이 간호학과 편입생은 편제상 3학년으로 편입하나 2학년 학생들과 대부분의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등 신입생의 대학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직의 교육과정은 타 전공에 비해서 학습량이 과중하며 임상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한다. 학생은 이론이나 실습 교육과정에서 독특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확립해간다. 그러나 편입생의 경우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학문적 정체성을 지닌 채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은 이들이 기존 학생들과 융화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함으로써 보건의료 전문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장애가 된다(김영경·조명옥·양진향, 2005).

더욱이 간호교육기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간호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과 관련된 실습과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타 학과 또는 유사학과를 전공한 편입생의 경우 전공 교과목 수강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존 학생들이 전공과목 수강과 수업 이외 활동 등을 통해 이미 구축한 집단에 동화하는 일 또한 편입생에게 용이하지 않다.

사회적 요구 및 추세에 따른 급격한 편입생 수의 증가는 대학으로 하여금 이들이 편입한 대학에 잘 적응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일을 요구하게 되었고, 특히 간호학과 편입생은 학과 특성 상 타 학과 편입생들보다 적응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이 짐작되나, 선행연구들은 편입생들의 실태조사, 편입 요인, 학업 성취도, 학업 만족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염지숙, 2009; 오영재, 2006; 이숙임·이은경, 1998; 이준형, 2004; 최금진, 2011). 하지만 간호교육자의 입장에서 편입생들의 삶을 단편적이고 분절적이 아닌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편입생들의 삶에 대한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이해만으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도가 불가능하며, 대학에서의 진정한 학생 지도, 특히 낮은 문화 속에서 새롭게 대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편입생 지도는 지도교수가 학생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편입에 의한 충격(transfer shock)'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편입 첫 학기에 평점(grade point average, GPA)이 급감한다는 연구결과(Laanan, 2001)는 학업 성취도 및 학업 만족도가 고등교육의 주요 영향요인임(김성식, 2008; 최금진, 2011)을 고려할 때, 편입 첫 학기 간호학과 편입생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편입생의 중도 탈락률이 49%로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 24%의 두 배를 상회한다는 연구 결과(McCormick, 2003)와 대학 기관 차원에 있어 편입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편입생을 위한 서비스 향상 전에 편입생을 규명하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

(Tobolowsky & Cox, 2012)는 편입생의 경험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을 또한 뒷받침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서술하여 의미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위기 극복, 대학생활 적응 및 올바른 학업 성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대학생활 적응

적응이란 자신의 요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과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Lazarus, 1963).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과 대학생이라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정으로, 대학생이 환경을 자신의 요구에 따라 변화시키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나가는 것을 뜻하며, 대개 학업 성취도, 교육 만족도, 인간관계 등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김진희, 2012; 오영재, 2006).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신입생부터 시작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성경, 2003; 김진희, 2012; 서현·송선화, 2009). 대학생들이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과 그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문제의 조절, 관리가 요구된다. 대학 입학과 함께 대학생들은 낯선 환경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스트레스, 즉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후의 환경 변화가 매우 급격하다. 대학 진학이라는 획일화된 목표 달성을 위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이었던 고교생활은 대학 입학 후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해결해하는 매우 자율적인 생활로 전환된다. 때문에 대학생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위기, 갈등,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상이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야 함에 어려움과 불안을 겪게 된다.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서현·송선화(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과정의 중심현상은 ‘혼란스러움’, 핵심범주는 ‘나를 발견하고 더불어 함께함 속에서 전문성 찾아가기’로 나타났다.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의미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내적, 외적으로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변화의 노력인 것이다. 대학생활 속에서 대학생은 급격한 환경 변화의 가운데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 학업에 대한 불안, 미래 준비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한정아·심홍섭, 2005).

2. 편입생의 위기감

편입은 이미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졸업한 학생이 기존의 대학, 학과 선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목적에 따라 학과나 전공을 재선택하거나 명성이나 인지도가 높은 대학, 학과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에게 위기로 작용하는 대학생활에의 적응과 함께 새로운 대학의 고유문화, 체제로의 적응이라는 위기가 더해지게 된다(이숙임·이은경, 1998).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집에서 떨어져 생활하게 되어 낮은 물리적 환경에의 적응 등의 신체적 적응, 편입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 새 교수진 및 교우와의 인간관계 형성,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적응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최금진, 2011). 이중 심리적 적응이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잠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안도감은 느낄 뿐 이후에는 재학생과의 나이 차이에 따른 소외감, 학업 성취에서의 부담감,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염지숙, 2009).

편입은 새롭고 낮은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일종의 전이(transition)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초래한다. 더욱이 학사편입은 4년 학제를 이수하면 전적 학교의 전공에 관계없이 타 전공으로 편입할 수 있는 학사편입생의 경우 그 정도는 더 심하다.

Laanan(2007)에 따르면, 원래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즉 전이에 따라 문화적 충격이 발생하고 개인은 그에 따른 낮은 새로운 징후와 상징에 적응해야 한다. 편입생은 편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학 내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 도움을 받을수록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학습과 과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편입생이 적응을 더 어렵다고 인식하였고, 그에 따른 낮은 평점과 자존감은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미국 편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Cameron (2005)의 연구결과, 편입생들은 새로운 학교로의 전이, 이행에 몇 주에서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도 원만하지 못하였고, 이전 학교와 새로운 학교를 비교하면서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였으며, 편입이라는 것에 자신이 압도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등 많은 위기에 놓여 있었다.

편입생은 새 학교에서 지지 자원이 거의 없었고 소외되어 있으며, 친구 사귀기, 자신감 유지, 어딘가 소속되는 기회를 모색하는데 있어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기존의 재학생에 비해 학생 활동에 덜 몰입되어 있고 만족감도 덜하였으며, 몰입할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여도 참여 비율이 낮았다. 또한 편입생 스스로 편입이 자신들의 진전 정도를 늦추며 기존 학생에 비해 자신이 신속하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Woosley & Johnson, 2006). 결국 편입생은 새로운 학교 환경에 노출되어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그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학업성취 면에서, 기존 문화 속에서의 인간관계 면에서 재학생들과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질감과 소외감을 경험한다. 더욱이 전적 학교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공을 학습하면서, 편입 초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좌절감을 맛보게 되어 신입생의 두 배에 달하는 중도 탈락률을 보였다(McCormick, 2003).

스스로의 선택이기는 하나 일단 한 대학에서의 적응과정을 거치고 재수학의 기회를 갖게 되는 편입

생은 대학생활, 그에 따른 위기 및 적응과정에 있어 상이한 경험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의 편입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을 개인이 경험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1년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다시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한 학사편입 학생 10명으로, 일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5.2세로, 여자 8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되었고, 미혼 8명, 기혼 2명이었으며, 4년제 출신 9명, 3년제 출신 1명이었다. 출신 고교 계열은 문과 6명, 이과 3명, 실업계 1명이었고, 학비 조달은 부모님이 4명, 본인이 3명, 기타 3명(부모와 본인이 함께, 학자금 대출, 아내)이었다. 7명은 간호학과 상이한 전적 대학 전공을 가지고 있었다.

3.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비구조화된 면대면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간호대학장의 허락 하에 일개 4년제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게시를 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결정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면담내용은 녹음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면담에 예상되는 시간 등 연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연구 참여자의 권리, 비밀보장, 익명성, 연구참여의 철회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 폐기 등 윤리적 고려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서면화된 연구동의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신이 체험한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의 경험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비구조적인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면담을 진행하면서 편입 첫 학기 경험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

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참여자와의 심층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별 소요시간은 30분에서 2시간이었으며, 참여자 한 사람 당 12회의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각 면담은 녹음되었으며, 면담 직후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소형 강의실, 해당 대학의 외래교수 연구실 등을 미리 예약하여 이용함으로써 면담이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적극적인 경청자의 태도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오디오카세트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청취하며 필사함으로써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과 동시에 필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한 추가질문을 다음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관을 수시로 확인하고 '판단중지'함으로써 선입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면담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전체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묘사를 위하여 연합한 자료들로부터 주제, 주제모음, 범주들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공통된 관심을 도출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자들의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면담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정독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판단한 176개의 진술을 확인하였고, 3단계로 대상자의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 하였다. 4단계에서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를 이끌어내고, 5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에서 65개의 주제를 확인한 후 다시 22개의 주제모음과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6단계에서 자료 분석의 결과를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에 통합하고, 7단계에서 분석된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3명의 참여자에게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고 참여자는 제시된 내용이 자신의 경험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엄밀성(rigor) 평가기준(Lincoln & Guba, 1985)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무작위로 추출한 3명의 참여자에게 기술한 내용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기술이 참여자의 기술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발견이 실재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3명 모두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에 동감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 후 참여자가 아닌 간호학과 편입생에게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공감함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맥락에서의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면담 시 현장기록을 하여 참여자의 표정, 어투, 의성어 등 비언어적 표현이나 정서적 측면이 면담의 주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변화를 파악하고, 자료 분석 시 지속적 비교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면담과 자료 분석 전 편입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선가정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면담을 시행한 연구자는 충분한 간호교육 경험을 갖고 있었으므로 면담 내용을 들으면서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선입견과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은 없었는지 성찰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6개 범주, 22개 주제모음, 65개 주제, 17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확인되었다.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의 범주 6개는 ‘방향을 전환함’, ‘새로운 체제로의 적응’, ‘편입생이라는 꼬리표를 담’, ‘혼돈 그 자체: 당황과 걱정’, ‘학교에 매임’, ‘내가 감당해야함’이었다.

1. 범주: 방향을 전환함

범주 1 ‘방향을 전환함’은 ‘이루지 못한 꿈의 실현’, ‘직업적 미래를 위한 결정’, ‘후회 없는 삶의 설계’,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 ‘안정에서 벗어난 두려움’이라는 5개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고자, 그리고 직업적인 미래를 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설계하기 위하여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편입을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었으나 어려운 집안 사정이나 타 학과에의 수시모집 합격, 성적 미달 등으로 인해 진학하지 못했던 간호학과에 편입함으로써 이전에 하지 못한 관심분야로 진출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이루지 못한 자신을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타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서 간호사와 함께 일 하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간호학과로의 편입 결심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적 미래를 생각하여 전문직 등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의 매력과 취업 용이성 때문에 자신에게 맞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후회 없는 삶을 설계하기 위하여 자의에 의해 간호학과 편입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

존의 안정된 것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에 맞닥뜨리게 되고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편입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편입 첫 학기를 보내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안정된 생활로 회귀하고 싶음이나 새로이 간호학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 등을 경험하였다.

제가 생리검사실에 있었는데.. 그쪽 일 하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일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이쪽에 제격인데, 제격인데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새로운 길을 다시 한 번 선택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전문직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 했어요.

직장 1, 2년 생활하다가 연차가 들수록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직장 그만두면 더 이상 취업이 안 된다’라는 갑갑함이 들었어요. 다른 진로나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될 텐데 하고 그때부터 생각하다가, 의료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간호사가 훨씬 좋아 보였어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여러 가지도 생각도 하고 흔들렸다가 ‘내 갈 길은 가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아 내가 해야 될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고 싶은 그제, 마음이 더 많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별로 고민은 많이 안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남이 뭐라고 하던 내가 하겠다. 이런 식이라서.

제가 따른 인턴생활 할 때 좀 괜찮은 회사였었어요. 그니까 거기 있지 왜 너는 왜 여기를 선택하느냐 그니까 힘들게 가놓고 또 힘들게 가느냐.

아~ 내가 왜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이 험난한 길로 다시 왔을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십년 안에 부장이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제가 4년 나와서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또 다시 갈려고 하니까 그런 게 쯤.. 있는 거 같구. 제가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2. 범주 2: 새로운 체제로의 적응

범주 2 ‘새로운 체제로의 적응’은 4개 주제모음인 ‘새 학교 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움’, ‘전적 학교와 새 학교를 비교하게 됨’, ‘새 학교 체제에 녹아들고 싶음’, ‘새 체제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을 통해 간호학과에 편입한 후 새 학교 체제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적 학교와 새 학교를 비교하면서 전적 학교를 그리게 되었으나 새

학교 체제에 녹아들고자 그 안에서 최선을 하다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편입 첫 학기를 보내면서 전적 학교에 다닌 경험으로 인해 새 학교 체제를 더욱 낯설게 느끼고 그 속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였다. 그 가운데 전적 학교를 가리키는 ‘우리 학교’와 새로 편입한 ‘이 학교’를 구분하여 비교하면서, 전적 학교를, 익숙한 체제를 그리워하였다. 하지만 ‘이 학교’인 새 학교에 적응하고자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존 학생들의 분위기를 흐리는 등 새 학교의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 주어진 새 체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고 나니까 그전에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어서 이 학교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학교가 시스템이 달라지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닌 듯싶은데 계속 이거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

그 학교에 익숙해져 있어 가지구. 전적 학교에

2학년들끼리도 분반이 달라서 다른 분반 애들은 이름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같은 과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에 학교가 체육을 하다보니까 ‘동기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게 많아서

얘기할 때 꼭 짚어 줘요. 이(!)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덴지 전적 덴지, 꼭 짚어서. △△대가 아직 우리 학교가 아직 안된 ‘이 학교’. 우리 학교와 이 학교

다들 몽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엠티, 연합 엠티도 갔거든요.

편입생들끼리 몽쳐가지고 만들었다고 뭐라고 할까봐... 애들 분위기 흐트리고 학교 체제에 또 흡수되지 않는다고 그러실까봐

지금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상당히 공부하면서도 조금 두렵고. 만약에 학점도 안 나오고 내 기본적인 수양이 안 갖춰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죠.

3. 범주 3: 편입생이라는 꼬리표를 담

범주 3 ‘편입생이라는 꼬리표를 담’은 ‘편입생이라는 학년에 속함’, ‘편입생이라는 울타리에서 편안함을 느낌’,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재학생과의 거리’의 3개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간호학과 편입생은 첫 학기를 지내면서 편입생이라는 학년에 속하게 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

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기존 재학생들과의 거리를 경험하고 있었다. 편입학을 하게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편입생이라는 이름과 학년이 주어졌다. 3학년으로 편입을 하였으나 필수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모두 수강하게 됨으로써 어느 한 학년에도 속하지 못하고 겹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재학생과 자연스럽게 구분되게 되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편입생을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라고 경계하는 재학생으로 인해 편입생간에는 긴밀하고 상호 의지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재학생으로부터는 소외되고 벽을 느끼게 되었다.

저희들끼리 편입생 들으면 괜히 뜨끔하고, 그게 이름인 거 같고, 좀.. 기분이 그렇기도..

학교에서 몇 명 안 받아서 재학생들하고 섞어도 될 텐데, 굳이 편입생을 딱 구분해서 원래 기존 학생, 너는 편입생 이렇게..

편입생 안에서는 되게 좋아요.. 네.. 저희끼리는..

엄마한테 안하지만 같이 편입생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냥 저희끼리 이런 얘기들을 수월하게.. 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 땀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호되게 당했으니까 내년 편입생들한테는 처음에 딱 오면 다 얘기해줘 가지고 이런 혼란을 겪지 않게 하자.. 잘해줘야지 머 이런..

편입생들끼리는 친한데.. 대학생들은 아직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다가가는 건지 그 친구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재학생들하고 거리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나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뜻 이렇게 막 먼저 다가오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 가지구

저도 사회복지학과에 있을 때 편입한 사람들이 싫었어요. 우리는 1~4학년까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들어와서 필요한 것만 배워서 나가는 것이 알미웠어요. 간호학과생들도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수업이 너무 다르고, 자기들 편한 시간에 편한 시간 아니지만 빈 시간에 뭔가 시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소외되는 구나.

4. 범주 4: 혼돈 그 자체: 당황과 걱정

범주 4 ‘혼돈 그 자체: 당황과 걱정’은 4개 주제모음인 ‘예상과 다른 학과 분위기’, ‘미리 준비하지 못했음이 안타까움’, ‘불투명해진 미래를 걱정함’, ‘생소한 수업내용에 공황상태가 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예상과 다른 학업 환경과 학과 분위기로 인해 두 번째 학업을 매우 혼란스럽게 시

작하면서, 사전 정보의 부재와 학업을 위한 기초가 미흡하여 이에 미리 대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동시에 학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통해 편입 전 당연시하였던 취업이 불확실해짐과 동시에 취업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졸업 후 미래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고 있었다. 더욱이 편입 전 전공과는 생소한 간호학에 대한 수업내용이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보가 되어가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한 학년 한 학년 체계적으로 배우는 재학생과 비교하여 많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이러한 가운데 자신이 제대로 배워서 졸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맨 처음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이렇게 다들 열심히 공부할지 몰랐어요.(웃음) 우리 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인제.. 잘할 수 있겠구나 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음..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 막연하게. 그냥 편입생들 조금 바쁘고, 이 수업 듣고 저 수업 듣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 생각했던 거랑 조금 많이 달랐던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랐어요. 여기 분위기가 이럴 줄은 몰랐고..

생물이 기초가 깔려야지 공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할 만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쪽 계통에 대해서..

아 여기는 이기 필요하니까 어쨌든 개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읽고 가자했는데, 만약 생물학이나 다른 것을 공부해오라고 했다면 당연히 다들 공부해왔을 꺼 같고

정보가 많이 없어 가지구.. 저도.. 할려구 결정은 했지만, 음.. 생소한 분야고, 모르니까 무턱대고 들어가 좀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든지 이런 talking, tip을 서로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최악의 상황들을 계속 저희에게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또 있구나..

4년제 간호대를 나오면 지금은 어쨌든 간호사가 모질라서 취업을 수월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3차병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나이도 좀 걸리고.. 학점도 얼마이상 되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불안한.. 나이도 조금 불안하고..

난 어떻게 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되고 또 수업을 듣다보면 전문간호사까지 꼭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막 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내 삶에서 있는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에 연속된 스트레스를 받고 와~ 내가 이렇게 무식했었다.. 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원래 이런 애 아닌데 자꾸 바보가 된 같은 거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한번.. 한번 울었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 하는데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수업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리 기초가 없어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어제 조금은 공부를 했으니까', '어제는 한 단어 알아 들었으면 오늘은 두 단어 알아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정말 좌절스러워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땡~ 돌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막 기존학생들보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5. 범주 5: 학교에 매임

범주 5 '학교에 매임'은 '빡빡한 일정에 움푹달싹하기 힘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가 매우 벅참', '공부이외의 것은 사치임'이라는 3개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빡빡한 수업일정에 충격을 받았다. 편입생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면서 하루하루를 긴박함 속에 보내면서 깊이 있게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이 아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학원에 등록한 듯한 기분을 경험하고 있었다. 3학년으로 편입을 하였지만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학년이 뒤섞여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는 동시 예시까지 공부해야 할 만큼 해야 할 것들의 홍수 속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것을 벅차하였다. 심지어 운동, 여가, 육아 등 공부 이외의 것에 여유를 둘 수 없고, 그 가운데 일상생활과 학업 사이에서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여기고 이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번에 대학 가서는 좀 오래 다니더라도 좀 느긋하게 이렇게 생활해야지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더 빡빡해진 거예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 들고..

그런 걸 고민할 만한 시간도 없을뿐더러 너무 하루하루가 긴박해서.. 레포트도 많고 발표수업도 있고.. 그리고 쪽지시험.. 간호용어 같은 거는 쪽지시험도 치고 하니까 진짜 매일 닥친 일 하기에 급급했던 거 같아요.

쭌.. 그냥.. 마크만 그렇고 간호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배우러 온.. 학교라는 기분이 덜 들어요. 그냥.. 자격증 따러 온.. 학원.. 고론 느낌이에요. 진짜.

네~ 양이 너무 많아요.. 4년에 배우기에도 많은 양인데..

수업을 듣다가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받아 적어요. 무조건 받아 적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가면.. 원래 공부해야 할 것도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들어준 예시까지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생리학이나 이런 거 병리학 다 배우고 지금 같은 성인간호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같이는 어렵거든요.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처음부터 계속 있지 않구, 중간에 이렇게 끼어든, 끼어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중간부터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1, 2학년이란 시간을 같이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힘들니까 다들 여유를 가지고 조금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있음 좋겠는데, 다들 시간표가 너무 빡빡해서 그건 또 안 되고

공부하는 거 말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저의 내면을 쌓는 일들에 이제.. 투자할 시간들이 없다는 것도 좀 아쉽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편입생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남들은 4년 공부할 것 2년 만에 공부하는데 4년 해도 피터지게 공부하는데, 우리는 피 땀 뻘뻘 터지게끔 공부해야 되지 않냐.'고요. 우리한테는 운동도 사치고, 쇼핑이랑 마찬가지다.

6. 범주 6: 내가 감당해야함

범주 6 '내가 감당해야함'은 '내가 선택한 것임', '새삼 나이를 생각하게 됨', '무조건 잘해야 함'이라는 3개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편입 후 첫 학기를 보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참여자들은 편입을 스스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편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혼자 헤쳐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힘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만 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편입생활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 나이가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지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과는 달리 따르지 못하는 체력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의 나이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편입생 자신들은 남들은 한 번에 가는 길을 '땀 흘려 왔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공부 이외에 어떤 것이든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동시에 늦게 시작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였다.

간호학과 학생인데, 거기서 나 혼자 살아서 남아야 한다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죠. 저는 혼자서 남이 안볼 때 우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남이 볼 때 우는 것은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아요. 백조가 호수에 떠 있기 위해서 다리를 막 움직이는데 이 다리

를 움직이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떠 있는 게 내 능력이다 라고 보이고 싶은 거지. 선택은 니가 한 거지 않냐고? 버티고 못 버티고는 너의 문제라고.. 지금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발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선택은 니가 한 거고, 학비도 니가 대출 받아서 한 거니, 학비 낸 만큼 니가 얻어와야지.

암기가 잘 안 되서요. 암기가 잘돼야 말로 잘 나오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나이 있으면 말도 잘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마음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아 이게 잘 하는 짓인가 이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차고 가야 하는데. 그만큼 제 욕심만큼 차고 나가질 못하니까 애들한테 좀 밀리는 기분도 들고 해서 좀 그랬었는데,

편입을 하고 나서네요. 일단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막 수업을 교수님 농담 던지는 것까지 이렇게 받아 적고 싶은 정도로 그 정도로 부담을 느껴서

신경이 좀 곤두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니까 그런 거. 일단 따르곤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니까 옛날 같았으면. 내 몸도 챙기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온 경우니까 내가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 뭔가 하나를 포기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편입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뭔가 희생해서라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많이 배우고 싶고 간호에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이 늦게 출발했지만, 상당히 많이 안다. 진짜 쓸 만한 사람이다. 이 분야에서.'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6개 범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5.2세로, Cameron (2005)이 전문대학에서 2년을 마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한 13명의 간호학과 편입생의 연구 결과인 평균 연령 26세와 유사하였다. 반면, 공과대학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최금진(2011)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77.2%가 동일계열로 편입학한 결과와는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70.0%의 전적 대학 전공은 간호학과는 상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편입 후 첫 학기를 지내면서 '이루지 못한 꿈의 실현', '직업적 미래를 위한 결정', '후회 없는 삶의 설계',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 '안전에서 벗어난 두려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있어 '방향을 전환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공과대학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최금진(2011)의 연구 결과에서 공과대학 편입생의 44.0%가 '취업 및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40.4%가 '장래성 있고 보람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0.9%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라고 편입 동기를 밝힌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Cameron (2005)의 연구 결과, 간호학과 편입생이 편입을 통해 새 지리, 문화, 기관의 절차에 대한 방향을 찾는 새로운 기술과 관계의 발전을 경험한다고 설

명하는 ‘적응’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학과 편입생은 대학 편입 후 일정기간 어려움을 겪지만 대개 자신의 편입 결정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Cameron, 2005) 또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편입생들이 인생세계에 있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편입을 결정하지만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과 기존의 안정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힘든 편입생활 속에 이전 생활로의 회귀를 고려함을 뜻한다. 신입생 보다 높은 편입생의 중도 탈락률(McCormick, 2003) 감소나 학생의 올바른 진학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학과 편입생들은 편입 첫 학기를 보내면서 ‘새 학교 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움’, ‘전적 학교와 새 학교를 비교하게 됨’, ‘새 학교 체제에 녹아들고 싶음’, ‘새 체제 안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 ‘새로운 체제로의 적응’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편입생 717명을 대상으로 적응 영향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새 학교의 체제를 알고, 이용가능한 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Laanan, 2007)와 Britt & Hirt(1999)가 편입생이 새 학교에 편입 직후 성적이 저하되는 ‘편입 충격’으로 ‘잘못 놓인 듯한 기분’, ‘새 학교에서의 개인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에 맞닥뜨림’과 같은 사회적 도전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 편입생들이 새 학교가 행정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었고 새로운 장소에서 학생이 되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신입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Townsend, 2008; Poisel & Stinard, 2006).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새 학교 체제에 녹아들고자 연합 앰티 등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편입생 대부분이 새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일부의 경우는 하룻밤을 함께 머물면서 새 학교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Townsend (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Laanan (2007)이 편입생 스스로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생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동아리나 단체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새 학교에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Wosley & Johnson (2006)은 편입생이 학업과 관련하여 편입 충격을 경험하기 때문에 비편입생에 비해 학생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으며, 학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비편입생 수준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편입생의 편입 충격에 따른 성적 저하 및 편입한 학교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뜻한다. 편입생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선호하므로(Townsend, 2008) 편입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오리엔테이션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편입 후 첫 학기를 보내면서 ‘편입생이라는 학년에 속함’, ‘편입생이라는 울타리에서 편안함을 느낌’,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재학생과의 거리’를 통해 ‘편입생이라는 꼬리표를 담’이라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즉, 새 학교, 새 학과에서 첫 학기를 지내면서 편입생이라는 학년에 속하게 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한편 알게 모르게 기존 재학생들과의 거리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편입생 자신들이 신입생처럼 취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기숙사 사용 시에도 편입생끼리 함께 하길 원하며, 함께 할 동료 편입생을 찾길 원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재학생 보다 더 환영하고 친근하게 되길

원한다는 Townsend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Townsend (2008)의 연구결과는 편입생이 기존 학생 대부분의 친분관계가 이미 형성된 곳에서 친구를 찾고, 교우관계를 형성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지만 편입생 자신이 새 학교에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느끼지는 재학생과의 거리’를 경험하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또한 17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편입생에 대한 기관적 접근을 연구한 결과, 대학에서는 편입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 대학의 부학장은 ‘일단 학생이 수업과정을 시작하면, 편입생으로서 자신의 라벨을 유지한다기 보다는 특정 대학의 학생이 된다.’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Tobolowsky & Cox, 2012) 및 공과대학 편입생은 ‘학우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가 5점 만점에 3.71점으로 나타나 만족함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최금진, 2011)와도 상이하였다. 편입생이 편입한 새 학교에 적응함이 있어 동료로서의 편입생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편입생 선후배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되 기존 재학생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해당 학과 차원의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편입 첫 학기에 ‘예상과 다른 학과 분위기’, ‘미리 준비하지 못했음이 안타까움’, ‘불투명해진 미래를 걱정함’, ‘생소한 수업내용에 공황상태가 됨’을 통해 ‘혼돈 그 자체: 당황과 걱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새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준비되지 못한 편입생에 의해 표현되는 ‘압도되는 듯한 감정’을 보고한 Andres (2001)의 연구 결과 및 편입생들은 자신의 학업 진행속도가 비편입생에 비해 느리며, 그들만큼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였다는 Woosley & Johnson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간호학과 편입생은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이 누구고 출석여부가 어떤지 인지함에 있어 교수진의 분명한 관심 부족에 익숙하지 않으며, 편입생이 새 학교로의 적응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전이 보다 강하게 주어졌을 때 충격이 크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Townsend, 2008; Kirk-Kuwaye, C. & Kirk-Kuwaye, M., 2007)와도 유사하다. 반면, 간호학과 편입생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관계를 발달시킴으로써 새 환경에 적응한다는 결과(Cameron, 2005)와는 상이하다.

편입 후 첫 학기를 보내면서 ‘빡빡한 일정에 움찔달짝하기 힘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가 매우 벅참’, ‘공부이외의 것은 사치임’ 등의 경험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 매임’을 체험하고 있었다. 이는 4년제 유아교육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염지숙(2009)의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이전 대학에서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면서 편입 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좌절감을 느끼며, 학업 성취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Cameron (2005)이 편입 첫 다섯 달 동안 새로운 기대, 새로운 교육과정, 낮은 간호학 등을 극복하면서 편입생이 경험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설명한 ‘이행 스트레스’라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Rouse & Rooda (2010)에 따르면, 간호학과 편입생들은 빡빡한 수업일정과 병행되는 실습 때문에 녹초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Cameron (2005)에 따르면 간호학과 편입생은 새 환경에서의 편입생의 학업적 능력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인 ‘학문적 충격’을 경험하고, 특히 편입생 자신이 증가된 교수진의 기대와 증가된 학업량에 부응해야함을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편입생은 이전 학교에서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학업 수행의 충격으

로 휘청거리며,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한 듯 느낀다. 편입생이 증가된 수업량, 보다 많아진 독서량, 학술지에 있어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반영, 학문적 글쓰기와 관련된 보다 높은 기대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결과 또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편입생들이 나름대로 고민은 하였으나 충분한 정보 없이 편입을 결정하였고, 자신의 예상과 다른 학과 분위기나 학업 내용, 향후 진행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을 뜻한다. 대다수의 참여자가 간호학과 상이한 전적 대학 전공으로 인해 편입 후 수업내용을 매우 생소하게 느끼고,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것을 벅차함을 고려할 때, 선수 학습내용, 진행될 교육과정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re-college program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학과 편입 첫 학기에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선택한 것임’, ‘새삼 나이를 생각하게 됨’, ‘무조건 잘해야 함’을 통해 ‘내가 감당해야 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염지숙(2009)이 4년제 유아교육과 3학년생을 대상으로 편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결과, 학문적 공백기와 나이 차이 등으로 편입생은 아주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편입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미 형성된 기존 재학생만의 공동체와 삶의 방식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부는 타의에 의해 또 일부는 자신에 의해 선택된 삶이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타 학생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것 같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Britt & Hirt, 1999) 및 편입생은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캠퍼스 내 자원이 부족하여 비편입생 집단 보다 소외감을 느끼므로 상당히 자립적으로 되고 대학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자원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Kodama, 2002; Townsend, 2008)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간호학과 편입생이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에서 겪는 경험을 토대로 하여 편입생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진은 편입생의 수업 및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효과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한 삶에 있어 방향을 전환하려는 예비 편입생들에게 편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수 학습내용, 진행될 교육과정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동시에 편입생 선후배를 연결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용함으로써 간호학과 편입생의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도우며, 나아가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에 기여해야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이 체험한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의 경험’이 무엇인지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과과정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편입생의 위기 극복, 대학생활 적응 및 올바른 학업 성취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B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편입생 10명을 대상으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학과 편입생들은 첫 학기에 ‘방향을 전환함’, ‘새로운 체제로의 적응’, ‘편입생이라는 꼬리표를 댄’, ‘혼돈 그 자체: 당황과 걱정’, ‘학교에 매임’, ‘내가 감당해야 함’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우선 간호학과 편입생들은 이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고자, 그리고 직업적인 미래를 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설계하기 위하여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간호학과 편입을 결정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을 통해 간호학과에 편입하였으나 새 학교의 낯선 체제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적 학교와 새 학교를 비교하면서 전적 학교를 그리워하지만 결국엔 새 학교 체제에 녹아들고자 그 안에서 최선을 하다고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서 편입 첫 학기를 지내면서 편입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편입생이라는 학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알게 모르게 기존 재학생들과의 거리를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예상과 다른 학과 분위기, 수업시간에 따라가기조차 벅찬 매우 생소한 학문인 간호학, 당연시 하던 취업의 불확실해짐, 취업이 안 될 경우를 고려하여 미래에 대해 새로 고민하는 등 혼돈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었다. 다섯째, 간호학과 편입생들은 편입 첫 학기에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빠박한 수업일정으로 충격에 휩싸였고, 공부이외에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학교에 매이게 될 것 같았다. 여섯째, 참여자들은 편입 후 첫 학기를 보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하며, 직선이 아닌 돌아온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예상과 다르게 작용하는 자신의 나이를 걸림돌이라 생각하였다.

편입 첫 학기 대학생활에서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편입생을 위하여 수업 및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교수진의 효과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과정에 따른 선수 학습내용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겠다. 동시에 편입생 선후배간의 자조모임을 활용함으로써 학문적, 정서적 지지를 통한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유도해야 하겠다.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고려하여 삶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예비 편입생들에게 편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으로 올바른 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향후 편입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단기간 교육을 통한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여 간호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해야 하겠다. 향후 편입생의 편입동기와 상황은 다르나 그 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점차 증가하는 편입생의 지도방안 마련과 함께 편입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중도 탈락률 제고에 기여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편입생이 첫 학기 대학생활에서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의미 있는 현상이나 개념을 중심으로 편입생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구조화된 후속 연구 및 학기 또는 학년에 따라 변화하는 경험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국어원. 2012.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성식. 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생활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영경 · 조명옥 · 양진향. 2005. 편입생의 정체성 변화 경험. 질적연구. 6(1): 15-31.
- 김진희.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현 · 송선화. 2009.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 501-521.
- 염지숙. 2009. 유아교육과 편입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239-263.
- 오영재. 2006. 대학 편입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2): 451-474.
- 이숙임 · 이은경. 1998. 편입학생의 실태와 교육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2(2): 147-168.
- 이준형. 2004. 편입생의 평점 평균 분석: 대학의 편입학 정책에 대한 시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2): 41-66.
- 최금진. 2011. 공과대학 편입생들의 공학교육인증 수용 증대를 위한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14(2): 3-12.
- 한정아 · 심홍섭. 2005. 대학생의 자아분화,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65-981.
- Andres, L. 2001. Transfer from Community College to University: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British Columbia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31(1): 35-74.
- Britt, L. W. & Hirt, J. B. 1999. Student Experiences and Institutional Practices Affecting Spring Semester Transfer Students. *NASPA Journal*. 36: 198-209.
- Cameron, C. 2005. Experiences of Transfer Students in a Collaborativ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Community College Review*. 33(2): 22-44.
- Colai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Kirk-Kuwaye, C. and Kirk-Kuwaye, M. 2007. A Study of Engagement Patterns of Lateral and

- Vertical Transfer Students during their First Semester at a Public Research University. *Journal of the First Year Experience and Students in Transition*. 19(2): 9-27.
- Kodama, C. M. 2002. Marginality of Transfer Commuter Students. *NASPA Journal*. 39: 233-250.
- Laanan, F. S. 2001. Transfer Student Adjustment.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114: 5-13.
- Laanan, F. S. 2007. Studying Transfer Students: Part II: Dimensions of Transfer Students' Adjustment.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1: 37-59.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cCormick, A. C. 2003. Swirling and Double-dipping: New Patterns of Student Attendance and their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21: 13-24.
- Poisel, M. A. and Stinard, C. A. 2006. Networks for Transfer Succes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the Community College*. 12: 139-146.
- Rouse, S. M. and Rooda, L. A. 2010. Factors for Attrition in an Accelerated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9(6): 359-362.
- Tobolowsky, B. F. and Cox, B. E. 2012. Rationalizing Neglect: An Institutional Response to Transfer Studen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3(3): 389-410.
- Townsend, B. K. 2008. Feeling like a Freshmen Again: The Transfer Student Transition.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44: 69-78.
- Wosley, S. A. and Johnson, N. J. 2006. A Comparison of the Academic and Cocurricular Outcomes of Residence Hall Transfer Students and Nontransfe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Housing*. 34(1): 25-30.

金建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간호교육, 성인간호, 노인간호, 질적연구 등이며, 최근 발표한 논문은 “간호학과 인증평가에 따른 간호교육의 질 향상 및 질 확보 노력에 대한 교수 인식(2011)”, “재가노인의 수면장애 유무에 따른 우울, 신체형장애 및 삶의 질(2011)”, “간호대학생의 재활병동 임상실습경험에 대한 연구(2006)” 등이 있다(khkim@cup.ac.kr).

黃銀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수면, 탄력성(Resilience), 노인간호 등이며, 최근 발표한 논문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2012)”, “병원간호사의 근무형태와 주간수면과다증에 따른 직무몰입(2011)”, “일부지역 여고생들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2011)” 등이 있다(ehh@wku.ac.kr).

투 고 일: 2012년 08월 28일

수 정 일: 2012년 09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09월 21일

Transfer-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he First Semester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Crisis Overcome –

Kon Hee Kim, Eun Hee Hwang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nd describe what transfer-students experienced in their first semester of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ten juniors who enrolled in nursing school as transfer students. They were asked to record and describe whatever they wanted to tell the researcher abou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Their records included their feelings, thoughts, and so 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2011 and was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In this study, six essential themes were extracted: 'Re-engineering my life', 'adaptation to a new system', 'branded as transfer students', 'current chaos: mixing fluster and concern', 'tied to school', and 'answering for my decision'. Recently, the number of transfer students in nursing schools increased rapidly as nursing schools were expanding in size in response for the shortage of nurses at government level. However, issues related to the adaptations of transfer students were not discussed so far. On the basis of this result, we can understand the transferr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and provide systematic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m. Additionally, we can develop curriculum appropriate for them which in turn might lead to high-quality educated nurses.

Key words: department of nursing, transfer-student, university adjustment